

계란유통구조개선, 사료가격 안정수급대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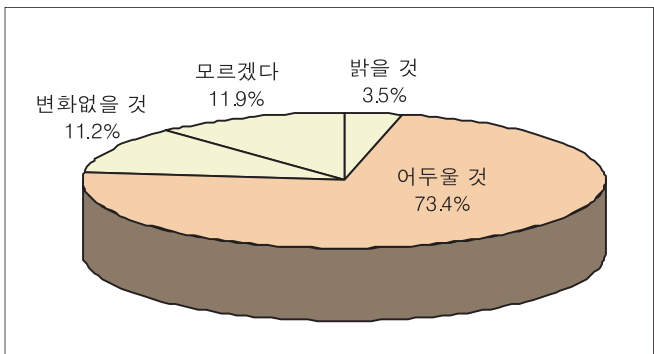
지난 8월 29일 대전 유성 소재 베스트웨스턴 레전드 호텔에서 ‘위기에 처한 채란업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제 11회 전국채란인대회를 개최했다. 본고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채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내용이다.

본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143명으로 설문에 응한 채란인들의 사육규모는 평균 4만3천수로 지난 2005년 10월 채란인대회 때 4만7천수 보다 규모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 편집자주 -

1. 향후 양계업 전망은?

금년은 4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다행히 42일만에 종식되었고, 얼어붙었던 계란소비가 빠른 회복을 보였다. 과연 앞으로 채란업 전망에 대해 양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채란인들은 73.4%가 어두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밝을 것이라는 답변은 3.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 보다(62.2%가 어두울 것, 8.5%가 밝을 것) 어둡게 나타났다. 고곡가, 고유가 행진으로 생산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 수취가격이 생산비 선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최근 이 같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양계업자가 늘어났고,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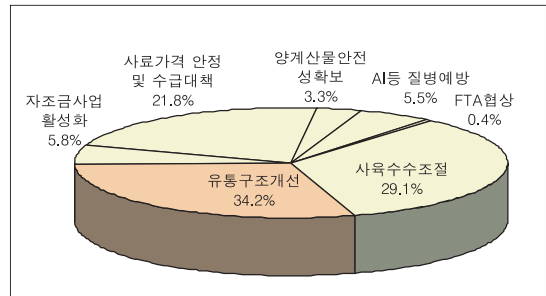
〈도표1〉 향후 양계업 전망

2. 농장 규모 확대 계획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81.0%가 현상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고, 확대할 것이다 11.3%, 축소할 것이다 7.7% 순으로 조사됐다. 산란종계 자율쿼터제가 해지된 이후로 지난해에는 45만수에 가까운 물량이 과잉 입식되면서 거래 시장에서는 큰 가격할인(D/C)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어두운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망하겠다는 농장이 대부분이라고 풀이된다.

3. 채란업계 가장 큰 당면 현안은?

채란업계 당면과제는 예년과 같이 계란유통구조 개선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후장기제도, 가격할인(D/C) 등의 병폐 등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실시한 설문에서는 종계쿼터제가 13.9%로 3위를 나타냈지만, 금번 조사에서는 사육수수조절이 29.1%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료가격 안정·수급대책 21.8%, 자조금사업 활성화 5.8%,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예방 5.5%,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 3.3%, FTA 협상 0.4% 순으로 조사됐다.



〈도표2〉 채란업계 가장 큰 당면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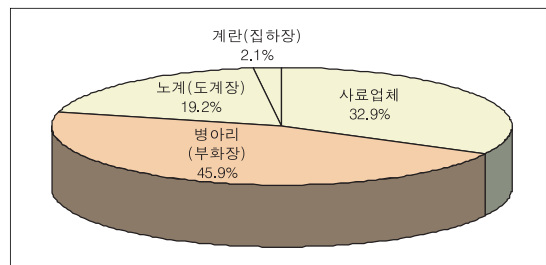
4. 귀 농장의 환우 실태는?

설문에 따르면 85.6%가 강제환우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4.4%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병의 우려가 있어 예년에는 협회차원에서 강제환우금지운동을 실시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산란 성적이 좋은 계군을 선택해 절식기간과 점등 중지 기간이 길수록 환우 이후의 성적(산란율, 난각 지속)이 좋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어 예년에 비해 많은 농가들이 환우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산란계의무자조금 거출대상은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최종산물이 도축장을 통해 나오는 타 축종과 달리 산란계는 사육기간 중에 산물이 생산되는 모호한 상황에서 자조금 거출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산란계의무자조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도표3〉 산란계의무자조금 거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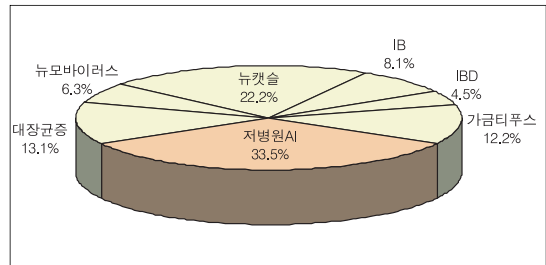
있다. 자조금을 직접 낼 농가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병아리(부화장) 45.9%로 가장 많이 답하였고, 사료 32.9%, 노계 19.2%, 계란 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채란산업의 어려운 파고를 뛰어넘어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 자조금 거출대상 선정에 있어 업계간에 조속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최근 농장에 문제시되는 질병은?

매년 그렇듯, 양계 현장에서는 호흡기 질병이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3.5%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답했고, 뉴캐슬 22.2%, 대장균증 13.1%, 가금티푸스 12.2%, IB 8.1%, 뉴모바이러스 6.3%, IBD 4.5% 순으로 답했다.

산란계에서 다발하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대부분 혈청형이 H9N2로 확인되나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적인 임상증상이 현격히 다르게 나오고, 부검소견이 다르게 관찰되어 변이의 의심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질병으로써 꾸준히 차단방역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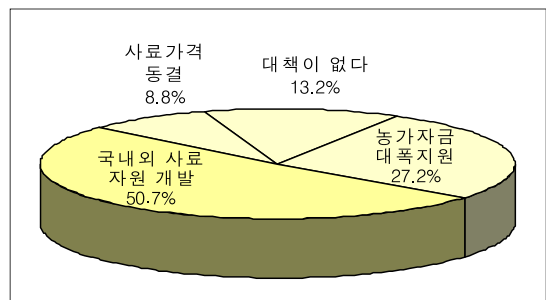
〈도표4〉 최근 농장에 문제시되는 질병

7.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대한 귀 농장의 계획은?

최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 HACCP 인증 등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추후 인증 받을 예정이라고 답한 농가는 50.0%, 인증 절차를 밟을 것이다 13.2%, 이미 인증 받았다 20.6%, 관심 없다 16.2%로 나타나면서 83.8%가 친환경축산물인증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앞으로 FTA 등으로 인해 수출입이 자율화되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내 축산물 경쟁력의 한 방안일 것으로 기대한다.

8. 귀 농장의 사료비와 계란 생산비는 얼마인가? 사료 가격 안정 및 수급 대책은?

국제 사료원료가격이 지난 2006년 말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당시 옥수수 가격은 143원/톤에서 현재 338원/톤으로 상승하면서 무려 2.3배가 뛰었다. 채란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사료비는 평균 434.2원/kg, 계란 생산비는 107.8원/kg이라고 답했다. 산란계는 2006년 말에 200원대에서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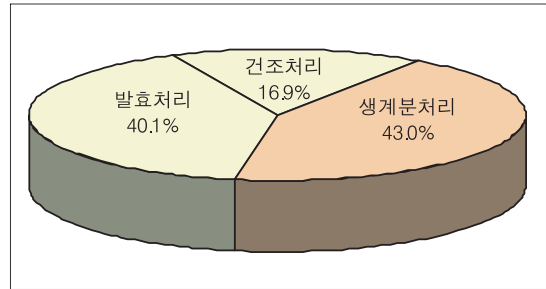


〈도표5〉 사료가격 안정 및 수급대책

한편, 사료가격 안정 및 수급대책에 대해 국내의 사료자원 개발이 50.7%, 농가자금 대폭지원 27.2%, 대책이 없다 13.2%, 사료가격 동결 8.8%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대책 토론회’에서 해외 사료자원 개발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와 같이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9. 계분처리 실태(시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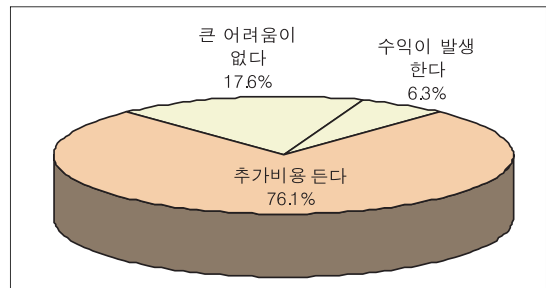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의 유지와 복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분뇨(해양투기금지, 양분총량제, 악취방지)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농가에서는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 축분을 자원화하여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퇴비) 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3.0%로 대부분 생계분 처리한다고 답했고, 40.1%는 발효처리, 16.9%는 건조처리 한다고 응답했다.



〈도표6〉 계분처리 실태

10. 계분처리시 처리비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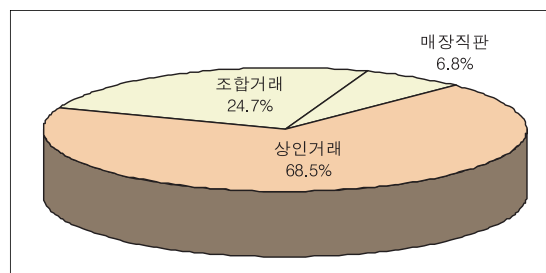
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이 든다 76.1%, 큰 어려움이 없다 17.6%, 수익이 발생한다 6.3% 순으로 나타나 계분을 이용한 수익원 창출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는 규모 있는 농장은 자체적인 발효처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현재 대부분 인근 계분처리장이나 비료공장으로 수당 50원 내외로 오히려 비용을 들여가면서 처리하는 농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표7〉 계분처리시 처리비용

11. 계란 출하 주요 형태는?

계란은 상인거래가 68.5%로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고, 조합거래 24.7, 매장직판 6.8%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브랜드란이 늘면서 매장직판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부분 상인을 통해 판판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도표8〉 계분출하 주요형태

12. 협회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이번 채란인 대회에 참석한 농가를 대상으로 협회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물어보았다.

첫째, 산란중계 자율쿼터제 해지에 따라 과잉물량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일부 회원들은 사육수수조절은 농가 스스로 노력이 필요로 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케이지당 1마리 줄여 넣기 운동 △낙농업계처럼 자율적인 쿼터제 실시 △경제주령 이상 사육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화 제도적 장치 도입 △안정적 소득망 구축을 위한 부화장의 생산감축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등록된 농가에 한해 일정한 수수 기준으로 생산·관리가 이루어져 안정생산을 위한 축산농가의 보호 장치가 도입되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보였다.

둘째, 본 설문에서 34.2%를 차지하면서 높은 수치로 조사된 바와 같이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격할인(D/C)폭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의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계란 가격 결정권은 주최인 생산자가 아닌, 유통상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현 실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집하장 시설 자금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유통망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셋째, 농가와 정부의 의사소통 창구인 대한양계협회의 결속을 통해 생산자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생산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양계인들이 단합해 생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